



옛 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5월 한달간 하루 1시간씩 부른다

지난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라이브 공연이 펼쳐졌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악한 날씨였지만 출연진들은 아랑곳 않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관람객들은 따라부르며 화답했다. 어느 버스킹 공연처럼 환호성도, 뜨거운 열기도 없었지만 가수들과 관객이 함께 만드는 잔잔한 울림은 광장을 꽂 채웠다. (사)오월음악이 주관하는 '5·18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오월의 노래' 무대다.

5월1일부터 한달간 열리며 5·18기념행사 문을 여는 '오월의 노래'는 음악을 통해 광주 정신을 이야기하는 공연이다. 지난 1989년 전국 음악인들이 광주에 모여 전제와 폭압에 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만든 '오월 거리 음악회' 명맥을 잇는 행사다. 가수 김원중씨가 이사장을, '지리산', '파랑새' 등을 만든 민중가요 작곡자 박종화씨가 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년 만에 부활한 데 이어 올해 진행되는 두번째 행사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시계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는 오후 5시18분에 시작했지만 올해는 오후 7시30분으로 약 두시간 늦춰졌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무엇보다도 출연진 구성이 달라졌다. 작년에는 민중가수 뿐 아니라 인디밴드, 아카펠라, 국악, 힙합 등 67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 공연을 펼쳤다. 올해는 민중가수, 인디밴드 외에도 노래패, 합창단 등 39개팀을 섭외해 민중 음악 위주 무대를 꾸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하며 광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월 광장과 음악회 본래 의미를 더욱 알리기 위해서다.

지난 1일 열린 첫 무대는 '오월을 노래하는 사람들'(강숙향·강평근·강형원·이근철·이현미·정영훈)이 나섰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노래 '화인'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철의노동자', '단결 투쟁가'를 불렀다. 함께 자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상설음악회-오월의 노래' 공연에서 '오월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세월호와 5·18 관련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인디밴드·노래패·합창단 등 39개 팀 참여 민중음악 무대 비바람 몰아쳐도 끝까지 진행

리한 시민 50여명은 '오월의 노래1, 2',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정가' 등을 따라 부르며 오월정신을 공유했다.

2일 김과리·이안밴드, 3일 주하주·이안밴드가 무대에 올랐고 오늘(4일)은 정용주·바닥프로젝트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용주는 '세월이 갈수록', '지리산', '바닥프로젝트는 '홍어송', '꽃겨냥네'를 들려준다. 5일에는 바닥프로젝트와 함께 5·18 광주민중항쟁 35주년 기념 뮤지컬 '비망'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일정은 '오월의 노래' 공식 페이지(www.facebook.com/maymusicbusking)에서 게재돼 있

2016 오월의 노래 상설음악회

4일	정용주, 바닥프로젝트	18일	박종화, 김원중, 박문옥, 소리타래
5일	뮤지컬 '비망', 바닥프로젝트	19일	박종화, 소리타래
6일	박양희, The Present	20일	이선, 삼촌밴드
7일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21일	백자, 희망새
8일	(사)내벗소리민족예술단, 노래하는나들	22일	류금선, 희망새
9일		23일	국도1호선, 류금선
10일	김영대, 시노래프로젝트 Bluemoon	24일	정용주, 류의남 밴드
11일		25일	이수진, 프롤로그
12일	광산구립합창단, 이광석	26일	주하주, 류의남 밴드
13일	이지상, 프롤로그	27일	광주노동자노래패연합, 손병희
14일	삼촌밴드, 김원중	28일	연영석, G-clef
15일	제6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29일	박창근, G-clef
16일	Almost Blue, 김현성, 우타고에 합창단	30일	우리나라, 박성환
17일	5.18 전야제	31일	Almost Blue, 우리나라, 광주노동자노래패연합, 박성환

다. 손송재 사무국장은 "'오월의 노래'는 1980년 당시 노래를 통해 체제와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다"며 "비 등 날씨에 상관

없이 무대를 계속 열어 광주 민주 정신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682-051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근 보름 사이에 대중가요 '봄날은 간다'를 두 차례나 라이브로 감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것도 대형 공연장이 아닌 오붓한 분위기의 하우스 콘서트에서다. 첫 번째는 지난달 12일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신춘(新春)음악회가 열린 광주 양림동 한희원 미술관에서였다. 서양화가 한희원씨가 오래된 한옥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미술관은 제목 그대로 새봄을 맞는 음악회 장소로 안성맞춤이었다. 특히 '봄날의 조우'를 주제로 한 이날 무대는 출연진인 광산문화예총 상주예술단체 '레인뮤즈'(Rein Muz)와 관객 150여 명의 하모니가 빛났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조르다나의 '오 내사랑', 슈베르트의

광산 하우스 콘서트

semble).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반주에 메조 소프라노 이진진씨의 중저음 목소리에 실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봄날이 간다 中)는 듣는 이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셨다.

두 번째는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서였다. 무대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산문화예총의 '하우스콘서트'. 이날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려 공연장으로 향하는 내내 '과연 몇 명이나 올까'라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광주문화예총과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도심에서 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우였다. 입구에 들어서자 삼삼오오 몰려든 관객들로 공연장은 활기가 넘쳤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등 빈 객석'과 '꽉 찬 무대'였다. '광산 하우스콘서트'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관객과 연주자가 마루에 앉아 음악과 대화를 이어가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살롱음악

'하베마리아' 등이 공연되는 동안 관객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얼마 품에 잡은 아이의 해맑은 얼굴,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에 취한 반백의 신사, 흥겨운 노래에 맞춰 몸을 살랑 살랑 흔들던 중년 여성들... 여기에 마지막으로 소프라노 유영민씨가 '봄날은 간다'와 '세노야'를 부르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기 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우스 콘서트는 아직 지역에서 생소한 분야다. 그래서인지 하우스콘서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반면 타 지역에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다. 하우스 콘서트 같은 작은 무대가 '흥하다'는 건 문화도시의 저변이 넓다는 방증일 것이다. 혹시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11월까지 이어지는 광산하우스 콘서트(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7시30분)를 두드려 보시라.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다시 만나는 박효선' 희곡집 출간 보고회

13일 극단 토박이에서

'오월광대' 박효선 재조명

'오월광대' 박효선(1954~1998·사진)을 재조명해보는 '다시 만나는 박효선' 희곡집 출간 보고회가 열렸다. 오는 13일 오후

7시 극단 토박이(광주시 동구 민들레 소극장).

이날 보고회에서는 마정화 영화평론가가 박효선 작품 비평을 발표한다. 이어 임철우 소설가, 오수성 전남대 명예교수, 임진택 명창이 '나의 친구 박효선'을 주제로 회고와 함께 작품들을 소개한다.



희곡집은 토박이 단원을 비롯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박효선 희곡집 출간 준비모임'을 결성해 오는 9월 총 3권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1권에는 마당극 대본 '함평고구마' 등 대표작과 비평, 박효선론을, 2권은 '누가 모르는가' 등 보존작을, 3권은 신문·잡지 기고

문, 일기 등 수기로 꾸민다. 또 북쪽에는 임철우, 김경주 등 지인들이 기억하는 박효선 모습을 실는다.

지난 1989년 박씨가 만든 '민들레 소극장'은 동구 전남여고 뒷편으로 자리를 옮겨 9월 책 출간과 함께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KBS에서 '박효선 다큐'가 방영될 예정이다. 문의 062-222-62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수화 교육 '보이는 목소리'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이 수화 전문교육 프로그램 '보이는 목소리'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사단법인 한국농아협회 광주광역시협회 박태경 수화통역사가 강사로 나서 ▲마임으로 나를 표현하는 '나는 누구인가'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 '블랙'을 관람하고 느낀 점 나누기 ▲생활수화 배우

기 ▲몸짓, 표정을 통해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방법 등 수화 기초입문부터 수화통역까지 전 과정을 강의한다.

오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2시간 동안 총 20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9일까지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670-796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4천 ~ 9억8천만원)
- 전세가격 약 5억5천만원 ~ 8억원(전세가 상승중)
- 대출 없이 2년 전세 놓으면 분양가 회복 가능

근린상가 NPL 매각

- 분양가 336억원(1771평), 채권최고액 330억원
- 전세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 1억5천만원 (현재 보증금 12억 차입 6300만원)
- NPL 할인매각가격 200억원

제척부지 NPL 매각

- 시세 및 채권최고액 270억원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 한화컨소시엄)
- NPL 할인매각가격 120억원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향미를 건넬뿐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